

# 1592년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한 柳成龍의 시각과 대응

方 琪 喆\*

1. 머 리 말
2. 일본 침략설에 대한 대응
3. 전쟁원인과 일본군에 대한 인식
4. 대일강화에 대한 입장
5. 맺 음 말

## 1. 머 리 말

1592년(宣祖 25) 4월 시작된 일본군의 조선 침략은 6년 7개월간 朝鮮·明·日本 등 동아시아 삼국이 치열한 공방을 계속한 전쟁이다.<sup>1)</sup> 이 전쟁이

\* 건국대학교 강사

1) 1592년에 있었던 일본의 조선 침략을 보통 '임진왜란'으로 부르고 있다. 역사적 사건의 경우 그 이름에 따라 역사적 의미와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임진왜란'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란'이라 함은 일본인의 난동이라는 뜻을 가지며, 세종대 처음 등장하는 용어로(『世宗實錄』卷

동아시아 삼국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큰 것이었다. 종전 후 중국은 명에서 淸으로의 왕조교체가,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로의 바쿠후(幕府) 교체가 이루어졌다. 7년여에 걸쳐 전쟁터가 되었던 조선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때문에 종전 후 대내적으로는 국가개조사업, 대외적으로는 일본과의 국교재개 및 명과 청 사이에서의 외교 갈등 등 전쟁후유증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 전쟁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전쟁발발 원인, 조선의 의병과 수군의 활동, 조선 관군의 패배와 재정비 과정, 명의 원병파견 이유, 일본군의 보유병기 및 전술의 특성, 일본군의 점령정책, 전후 被虜人 송환과 국교재개 교섭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격 구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sup>2)</sup> 하지만 전쟁 당시 조선 정부가 일본의 침략을 어떻게 이해하고, 일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약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쟁 당시 국정을 총괄했던 柳成龍(1542~1607)을 통해 조선 정부와 중앙 관료들이 전쟁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82, 20年 9月 癸未), 당시 조선이 華夷의 입장에서 일본을 夷狄視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왜란'은 객관적 용어라 할 수 없고, 조선과 일본이 국운을 걸고 싸웠던 전쟁과도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이와 함께 전근대시대의 전쟁이라고 해도 임진이나 정유 등과 같은 간지의 사용이 합당한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때문에 이 전쟁을 '7년전쟁', '朝日戰爭', '豊臣秀吉의 제1·2차 침략전쟁', '豊臣秀吉의 1·2차 해외침략'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한편 북한에서는 '임진조국전쟁'이라고 하여 일본의 침략에서 조국의 안전을 지켜냈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술용어에 조국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것이 과연 객관적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임진왜란'을 대체할 만한 용어가 학계에서 통일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구체적 표현을 피하고 1592년 일본의 조선침략으로 명명토록 하겠다.

2) 1592년 일본의 조선 침략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정리한 것으로는 민덕기, 「조선후기의 회고와 전망」, 『韓日關係史研究의 回顧와 展望』, 국학자료원, 2002; 趙溪來, 「임진왜란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새로운 觀點의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5 등이 참고된다. 또 연구성과 정리는 박재광, 「壬辰倭亂 研究의 現況과 課題」, 『임진왜란과 한 일관계』, 景仁文化社, 2005, 70~99쪽에 수록된 論著目錄을 참고하기 바란다.

류성룡의 本貫은 豊山, 字는 이현(而見), 號는 西厓·雲巖, 諡號는 文忠이다. 1542년(中宗 37) 10월 1일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부친 柳仲郢과 모친 進士 金光粹의 딸(本 安東) 사이에서 외가인 義城縣 沙村里에서 태어났다. 그는 4세부터 글공부를 시작하여, 16세에 鄉試에 합격하였다. 23세에는 生員會試에 1등, 進士에 3등을 하였다. 24세에는 太學에서 학문을 닦았고, 이듬해인 1566년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承文院 權知副正字로 벼슬에 나아갔다. 이후 禮曹·刑曹·吏曹의 判書, 1590년 右議政으로 승임한 이후 이듬해 이조판서를 겸하였고, 이어 이조판서를 겸한 채 左議政이 되었다. 일본군의 침략을 막아서는 좌의정으로 병조판서를 겸임하면서 모든 군무를 총괄하였다. 전쟁 초기 조선이 패전을 거듭하면서 御駕가 平壤에 이르렀을 때 나라를 그르쳤다는 탄핵을 받고 면직되었다. 하지만 전투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군량을 전적으로 담당하였다.<sup>3)</sup> 1593년 평양성 탈환 이후에는 湖西·湖南·嶺南의 三道都體察使로 명군과 함께 남하하였고, 漢城으로 환도 후에는 領議政으로 군량미 확보와 貢物作米法 실시, 訓練都監의 설치, 각종 무기의 제조 및 성곽의 수축, 『紀效新書』의 浙江兵法 보급 등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류성룡은 일본의 침략을 맞아 현실정치 일선에 있었던 만큼, 그는 일본에 대한 고급 정보를 바탕으로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가 일본의 침략과 일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는 곧 조선 정부와 중앙 관료의 그것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침략과 관련된 그에 대한 연구는 국방정책에만 집중된 상태이다.<sup>4)</sup> 그 외에 그가 전란극복을 위해 펼친 외교활동이 주목되기도 했지만,

3) 1592년 5월 2일 좌의정에서 파직된 류성룡은 이후 군량 비축에 전념하였고, 9월 12일까지 군량문제는 전적으로 그가 전담하였다(張學根, 「壬亂初期 明君 來援과 軍糧論議」,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 海軍軍史研究室, 1993, 298~306쪽 참조).

4) 일본군의 조선 침략을 맞아 류성룡이 제시한 국방사상과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참고된다. 李種學, 「西厓 柳成龍의 軍事思想」, 『亞細亞學報』 13, 亞細亞學術研究會, 1979; 李載浩, 「壬辰倭亂과 柳西厓의 自主國防策」, 『歷史教育論集』 11, 歷史教育學會,

만, 관심은 주로 대명외교에 국한되어 있다.<sup>5)</sup> 또 그의 대일인식에 대해서는 華夷論에 입각하여 일본을 夷狄視했으며, 이는 스승인 李滉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기도 했다.<sup>6)</sup> 하지만 전란을 맞아 국정을 총괄했던 그의 대일인식이 화이론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쟁의 성격과 일본에 대한 그의 시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쟁발발 전부터 전쟁 당시까지 그가 어떤 관점에서 일본을 바라보고 전쟁을 이해했는지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전쟁 전 일본의 침략설에 대한 류성룡의 입장, 둘째, 전쟁 초기 조선의 일방적 패배 원인과 일본군에 대한 그의 평가, 셋째, 대일강화에 대한 그의 생각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그가 일본의 침략을 어떻게 이해했고, 전쟁을 통해 일본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987: 趙楨基, 「西厓 柳成龍의 軍政思想(Ⅰ)」, 『釜山史學』 14·15合輯, 釜山史學會, 1988: 趙楨基, 「西厓 柳成龍의 軍政思想(Ⅱ)」, 『昌原大學 論文集』 11, 昌原大學, 1988: 金昊鍾, 「西厓 柳成龍의 國防思想」, 『退溪學』 2, 安東大學 退溪學研究所, 1990: 趙楨基, 「西厓 柳成龍의 國防政策 연구」, 檀國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이원승, 『류성룡의 군사분야 업적 재조명』, 濟文閣, 1993: 김석근, 「서애 유성룡과 임란기 국방정책의 혁신」, 『歷史와 社會』 33, 국제문화학회, 2004: 金昊鍾, 「西厓 柳成龍의 戰術論」, 『退溪學』 6, 安東大學 退溪學研究所, 1994: 李載浩, 「西厓 柳成龍의 國防政策」, 『西厓 柳成龍의 經世思想과 救國政策』 上, 책보출판사, 2005: 송복, 「서애 유성룡 위대한 만남」, 지식마당, 2007: 오종록, 「서애 류성룡의 군사정책과 사상」,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8.

5) 李載浩, 「壬亂時 柳西厓의 對明外交의 實狀-특히 倭國과의 講和를 西厓가 먼저 主張했다는 証筆에 대한 究明-」, 『西厓 柳成龍의 經世思想과 救國政策』 上, 책보출판사, 2005: 한명기, 「임진왜란 시기 류성룡의 외교활동」,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8.

6) 김호중, 「西厓 柳成龍의 日本에 대한 認識과 그 對應策」, 『大丘史學』 78, 大丘史學會, 2005.

## 2. 일본 침략설에 대한 대응

1591년 3월 히데요시는 명을 침략할 것임과 함께, 이때 조선이 선봉이 되어 달라는 국서를 보내왔다.<sup>7)</sup> 조선 정부는 일본 상인들의 푸젠(福建)으로의 왕래가 빈번한 만큼, 이런 내용이 이미 명에 알려졌을 것을 염려하면 서도, 이 사실을 명에 알릴 것인지를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조선과 일본의 通信과 交隣은 人臣無外交 원칙에 의해 중국적 세계질서 안에서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sup>8)</sup> 하지만 사안이 중대했던 만큼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고, 결국 조선 정부는 이 사실을 명에 알리기로 결정했다.

이때 명은 이미 조선이 일본의 嚮導가 되어 명을 침략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다. 1591년 류큐(琉球)의 세자 쇼우네이(尙寧)는 일본의 침략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에 통보하였고,<sup>9)</sup> 푸젠 출신의 客商 陳申 역시 일본이 명을 침략할 것이며, 이때 조선이 향도가 될 것이라는 정보를 전한 바 있다.<sup>10)</sup> 사츠마(薩摩)에 머물고 있던 明人 許儀後 역시 조선의 사신이 북속을 위해 일본에 왔고, 조선이 선봉이 되어 일본과 함께 명을 공격할 것이라는 陳奏文을 명에 전달하였다.<sup>11)</sup> 때문에 명이 조선을 강하게

7) 『宣祖修正實錄』卷25, 24年 3月.

8) 김한규, 『한중관계사』 II, 아르케, 1999, 617쪽.

9) 『再造藩邦志』卷1

有琉球國世子尙寧遣使言 日本關白將自朝鮮入寇.

10) 『燃藜室記述』卷15, 宣祖朝古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時中朝有客商陳申 還自倭中言 關白平秀吉將入寇 以朝鮮爲先鋒.

11) 명에 허의후의 陳奏文이 전달된 것은 1592년 3월이며, 이 글은 개전 직후 명의 관리들이 조선 정부를 힐문하는 자료로 조선에 가져온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1591년 8월 명에서 조선 정부에게 일본의 정세 보고를 요구했을 때, 조선 정부는 이미 허의후의 진주문을 알고 있었다. 이로 보아 적어도 1591년 8월 이전 허의후의 글은 명에 전달되었고, 조선 정부 역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方琪喆, 『朝日戰爭期 明人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 정부는 夏節使 金應南을 명에 파견해 조선향도론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sup>12)</sup> 하지만 명은 조선에 대한 의심을 풀지 못하고 遼東都司를 통해 咨文을 보내 사실여부를 확인하였다.<sup>13)</sup> 이에 대해 조선 정부는 다시 陳奏使 韓應寅 등을 명에 파견하여 이러한 소문이 허위임을 밝혔다.<sup>14)</sup> 이때 명에 보낸 '陳倭情奏聞'을 류성룡이 작성하였다. 이 글을 보면 전쟁발발 전 그가 일본의 침략이 있을 것이라는 풍문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이란 종족은 아득히 먼 바다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들의 본성은 경솔하고 교활하며, 배 타는 것을 기능으로 삼고 노략질하는 것을 生理로 삼아 가까이하는 우리나라 연변으로부터 멀리는 중국의 해변까지 자주 출몰하여 백성과 관리의 걱정거리가 되어 온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sup>15)</sup>

라고 하였다. 위 글에서 그는 일본은 지리적으로 아득히 먼 곳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性理學의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미개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노략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일본의 민족성에 대해서는

“사람됨은 잘 변하고 간사하여 기쁠 때는 사람 같고 성이 나면 짐승 같아 한쪽으로는 가만히 보내어 노략질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국교를 핑계 삼아 왕래하므로, 우리나라가 엄하게 방비하여 침노와 약탈을 못하게 하고,

許儀後의 陳奏文, 『忠北史學』 19, 忠北大學校 史學會, 2007, 130쪽 참조).

12) 『宣祖修正實錄』卷25, 24年 5月.

13) 『宣祖修正實錄』卷25, 24年 8月.

14) 『宣祖修正實錄』卷25, 24年 10月.

15) 『西厓先生文集』卷3, 奏文 陳倭情奏文 辛卯

日本一種 遼在滄溟 伊性輕狡 以舟楫爲技能 以寇掠爲生理 近如小邦沿邊 遠如上國海徼 出沒比比 爲民吏患 固已久矣.

혹은 잘 달래어 견제하여 번방의 화를 늦추기도 하며, 또 그들의 동정을 멀리서 알기 어려우면 때때로 쇄환을 구실삼아 소식을 정탐하여 대책을 준비하였으나 오히려 그 요령을 얻지 못하였습니다.”<sup>16)</sup>

라고 하여, 일본인은 짐승과 같은 민족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이 일본과 교류를 하는 것은 일본의 요청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명의 의심을 풀려고 하였다. 또 조선은 일본에 대해 강온양면책을 통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일본의 정세를 탐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펼치고 있음을 밝혔다.

위 글에서 류성룡이 설명한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당시 실상을 정확히 나타낸 것은 아니었다. 조선은 명의 책봉하에 있었던 만큼 일본과의 통신이나 교린은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다. 때문에 조선 정부가 일본에 通信使를 파견한 것이나 일본의 사신이 조선에 온 것은, 일본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밝혔던 것이다.

일본의 정세에 대해서는

“예전 우두머리로 源氏가 있었는데 수십 년 전에 망했고, 그 후 여러 괴수들이 서로 다투다가 근래 다시 平秀吉이란 자가 빼앗아 대신하고 스스로 關白이라 부르는데, 싸움에 능하여 여러 괴수 중 으뜸이 되었음을 알았다.”<sup>17)</sup>

라고 하였다. 일본은 1467년 오닌의 난(應仁の亂) 이후 전란이 계속된 센고쿠시대(戰國時代)가 전개되었고, 이러한 혼란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 16) 위와 같은 글

反覆變詐 喜人怒獸 一面竊發作耗 一面稱款往來 小邦或邊嚴備以截侵掠 或羈縻以紓邊禍 又以動靜虛實 難於遙度 則有時以刷還人口等項爲名 偵探消息 以備策應 而猶未得要領.

#### 17) 『西厓先生文集』卷3, 奏文 陳倭情奏文 辛卯

有伊國舊酋源氏 滅亡在數十年前 諸酋交爭 近又有平秀吉者 奪而伐之 自稱關白 頗事戰伐 爲諸酋長雄.

와 히데요시에 의해 통일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 정부나 류성룡은 일본의 정세를 대략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위 글의 미나모토씨(源氏)는 일본의 카마쿠라 바쿠후(鎌倉幕府)의 쇼군(將軍)이다. 카마쿠라 바쿠후는 1333년 이미 멸망하였고, 1338년에는 아시카가 바쿠후(足利幕府)가 성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여전히 쇼군의 성은 미나모토이며 그를 일본의 국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sup>18)</sup> 이러한 점은 당시 조선 정부가 일본의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히데요시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전후 류성룡은 전란에 관한 문서의 정리와 저술에 몰두하여, 1604년 『懲毖錄』을 완성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히데요시에 대해 중국인으로 일본에 들어가 나무장수로 생업을 삼다가 국왕에 의해 군사로 발탁되었고, 후에 자리를 빼앗아 국왕이 된 인물이라고 하였다.<sup>19)</sup> 히데요시가 중국인이라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명과 조선군의 패배 책임을 완화시키기 위해 나타난 것으로, 전통적 중화사상에 기인한 것이다.<sup>20)</sup> 또 그가 일본의 국왕으로 지목한 인물은 노부나가이다. 노부나가는 1573년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아키(足利義所)를 교토(京都)에서 추방하여 아시카가 바쿠후를 붕괴시켰다. 이후 노부나가는 텡가비또(天下人)<sup>21)</sup>로서 권력을 행사했지만, 쇼군에 오르지 못했다.

히데요시가 국왕의 자리를 찬탈했다는 설명 역시 사실이 아니다. 조선은

#### 18) 『海東諸國記』日本國記 國王代序

國王姓源氏 第五十六代清和天皇十八年丙申 賜第六皇子貞純親王姓源 源氏始此 卽唐僖宗乾符三年也.

#### 19) 『懲毖錄』卷1

秀吉者 或云華人流入倭國 負薪爲生 一日國王出遇於路中 異其爲人 招補軍伍 勇力善鬪 積功至大官 因得權 竟奪源氏而代之.

#### 20) 石原道博, 『壬辰丁酉倭亂論』, 『朝鮮學報』14, 朝鮮學會, 1959, 246~247쪽 참조.

#### 21) 텡가비또는 센고쿠시대 말부터 근세 초기 전국을 지배한 권력자를 칭하는 용어이다.

일본의 천황이 아닌, 실질적 최고 권력자인 세아이타이 쇼군(征夷大將軍)을 일본 국왕으로 불렀고, 대외교류에서도 바쿠후의 책임자를 일본 국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조선뿐 아니라 명도 마찬가지여서 아시카가 바쿠후의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노부나가나 히데요시는 쇼군의 직위에 오른 것이 아닌 만큼, 그들을 일본 국왕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히데요시는 자신의 주군인 노부나가를 죽인 아케치 미쓰히데(明智光秀)를 야마자키(山崎)에서 격파함으로써 정권을 장악하였다. 히데요시에 대한 설명은 전후 저술한 『징비록』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당시 조선정부가 류성룡은 화이론에 입각하여 일본을 이적시하였고, 일본 정세의 세세한 부분이나 히데요시 개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sup>22)</sup>

일본이 명을 침범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왜적이 하는 것을 신이 보건대, 허황되어 믿을 것이 못 되며, 또 갑자기 교만하여 지면 반드시 망하는 법이라, 과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sup>23)</sup>

라고 하여, 일본이 침략할 것이라는 소문이 허황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히데요시는 일본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만큼 곧 망할 것이라며 명을 안심시켰다.

섬 안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關白이 미쳐 날뛰니 형세가 장차 얼마 가지 못하리라 하기도 하며 …<sup>24)</sup>

22) 류성룡은 『징비록』에서 히데요시에 대한 다른 설명으로 “미나모토씨가 죽은 것은 딴 사람 손에 죽었으며, 히데요시는 미나모토씨를 죽인 자를 죽이고 나라를 대신 차지했다고도 한다(或曰 源氏爲他人所弑 秀吉又殺其人而奪國云)”라고 하여 보다 정확한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附記하는 정도이며, 그는 앞에서 제시한 사료에 근거하여 히데요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던 것 같다.

23) 『西厓先生文集』卷3, 奏文 陳倭情奏文 辛卯  
所據倭賊 臣直見 其夸慢無實 驕驕必亡 爲不足慮者.

위 글을 보면 류성룡은 히데요시는 폭정을 일삼기 때문에 그 정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히데요시가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반역으로 정권을 획득했고, 세계의 중심인 명이나 조선을 오랑캐의 국가인 일본이 침략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성리학적 질서에 어긋나는 만큼, 히데요시의 집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류성룡은 일본이 명을 침범할 것이며 여기에 조선이 일본의 향도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허위임을 밝히는 한편, 조선이 일본에 대한 경계를 늦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에 알렸다.

왜놈이 날뛰고 기승을 부려 天道를 두려워 하지 않고 사람의 도리를 돌아보지 않으니, 그들이 패하기 전에 분수를 편할 줄 모르고 벌이나 전갈 같은 독으로 변방에서 해를 끼치지 않을 줄 어찌 알겠습니까? 이미 우리나라 연변을 지키는 장수들에게 방비를 엄하게 하였고, 왜적들의 배를 만나면 경계를 범하거나 지나가는 것을 가리지 말고 모조리 잡아 죽이게 하였습니다.<sup>25)</sup>

위 글은 비록 일본이 명을 침범할 정도의 세력은 못되지만 변방을 어지럽힐 수 있는 존재인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의 배가 명을 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선의 해안을 지나야 하는 만큼, 조선 근해에 나타나는 일본의 배는 모두 적선으로 간주하여 공격할 것이라며 명을 안심시켰던 것이다.

이상에서 일본의 침략이 있기 전 류성룡이 일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진왜정주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쟁 전 그는 화

24) 위와 같은 글  
島中人多說 關白猖狂 勢將不久 ….

25) 위와 같은 글  
伊賊 跳梁猖獗 不畏天道 不顧人理 及莫未敗 不能安分 安知蜂蠆之毒 不果一肆於邊徼之間哉 已行邦內沿邊守將 嚴謹軍火 如遇賊船 不揀犯境過境 輒便截殺外.

이론에 입각하여 일본은 성리학적 감화가 미치지 못하는 미개한 국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이 일본의 향도가 되어 명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조선이 일본과 외교관계를 가졌던 것은 일본의 요구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조선은 일본에 대해 강온양면책으로 대비하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한편 그는 당시 일본이 히데요시에 의해 통일사업이 완수되었음은 알고 있었지만, 일본 정세의 상세한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침입 여부에 대해서는 히데요시는 반역에 의해 정권을 장악한 폭군인 만큼 곧 멸망할 것이라며 명이나 조선으로의 전면적인 침입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sup>26)</sup> 물론 '진왜정주문'은 조선에 대한 명의 오해를 풀고 명을 안심시키기 위해 작성한 글인 만큼, 조선 정부나 그의 생각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전쟁 전 조선 정부나 그가 일본에 대해 큰 위협을 느끼지 않았음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26) 일본의 침략 전 류성룡이 鎭管體制로의 복구를 주장한 점, 權慄·李舜臣 등의 인물을 발굴한 것 등을 들어 그가 전쟁을 미리 예상했다는 견해도 있다(이성무, 「서애 류성룡의 생애와 사상」, 『류성룡과 임진왜란』, 태학사, 2008, 31쪽 참조). 물론 조선 정부는 일본의 침략을 예상했지만, 그 규모를 왜구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여, 경기·황해·충청·전라 등 해안지역의 방어만을 강화했을 뿐이다(方琪喆, 「壬辰倭亂期 朝鮮 官僚가 바라본 日本軍-平昌郡守 權斗文을 중심으로-」, 『軍史』 6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77쪽 참조). 이러한 사실은 그 역시 일본의 침략을 예상했다 해도 이전 있었던 왜구 수준으로 생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류성룡과 관련된 많은 설화에서 그는 자신의 형인 謙菴 柳雲龍에 미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런 평가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가 일본의 침략을 예상치 못했다는 것에 두고 있다(임계해, 「설화에 나타난 겸암과 서애의 엇갈린 삶과 민중의식」, 『퇴계학』 5,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3 참조). 설화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이러한 설화의 존재는 류성룡이 전쟁 전 일본의 전면적인 침략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3. 전쟁원인과 일본군에 대한 인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류성룡은 전쟁발발 전 일본의 전면적인 침략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결국 일본의 조선 침략은 현실로 나타났다. 1592년 4월 17일 류성룡은 일본의 침공으로 釜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sup>27)</sup> 일본의 침략을 맞아 조선 정부는 李鑑과 申硯을 파견했지만 모두 패했고,<sup>28)</sup> 그 결과 4월 30일 새벽 비가 오는 가운데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다.<sup>29)</sup> 5월 1일 開城에 도착한 宣祖는 威慶北道 兵馬節度使 申硯로 하여금 臨津江을 지키게 하였다.<sup>30)</sup> 하지만 5월 3일 漢城이 일본군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후 다시 개성을 떠나 4일 平山, 5일 鳳山, 6일 黃州를 거쳐, 7일에는 平壤에 도착하였다. 갈수록 전세는 악화되었고, 6월 10일 다시 평양을 버리고 12일 安州城을 지나 13일 寧邊에 도착했다. 영변에서 선조는 세자인 光海君을 江界로 보내 分朝를 설치케 하고,<sup>31)</sup> 자신은 22일 義州에 이르렀다.<sup>32)</sup> 일본의 침입을 받은 지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국왕의 피난이 국경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던 것이다.

일본군의 예상치 못한 침략에 대해 류성룡은

일본의 나라 됨이 멀리 바다 가운데 있어서 처음에는 마을이 분산되어

27) 『懲愆錄』 錄後雜記

壬辰四月十七日 賊報至.

28) 『宣祖實錄』 卷26, 25年 4月 丙午.

29) 『宣祖實錄』 卷26, 25年 4月 己未.

30) 『懲愆錄』 卷1

且命申硯同守 以遏賊西下之路.

31) 『宣祖實錄』 卷27, 25年 6月 壬寅.

32) 『宣祖實錄』 卷27, 25年 6月 壬子.

일정한 지배에 통솔됨이 없어 간간이 나와 도적질을 하더라도 큰 걱정거리  
는 안 되었는데, 豊臣秀吉이 간사한 꾀로 그 임금을 죽이고 위엄으로 백성  
을 몰아 마음을 쓰고 생각을 쌓은 지가 무려 10년이 되었습니다<sup>33)</sup>

라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즉 그는 일본을 미개한 종족으로 이웃 국  
가를 침략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평하며, 히데요시 개인에 의해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또 “일본과 틈이 생길 일이 없었고, 조선  
은 전화를 일으킬 만한 실책도 없었다”<sup>34)</sup>라고 하여 전쟁의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일본의 침략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에 화란을 받은 것은 역시 명 때문인데, 명이 급하게 구조하지 아니  
함으로써 천하의 난리를 열어 주었으니, 가령 명에 인물이 있다면 일을 도  
모함은 반드시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sup>35)</sup>

라고 하였다. 위 글을 보면 류성룡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것은 그들의  
주장대로 명을 침략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때문에 당연히 명은 조선  
을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명은 조선이 일본의 향도가 되어 명을 침략  
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행동이 있자 조선향도  
론이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조선을 강하게 의심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침입으로 국왕이 피난하는 처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에 있

33) 『西厓先生文集』卷9, 書 答吳遊擊惟忠書 癸巳 八月

詳日本爲國 邈在海中 其始也部落分散 不相統屬 雖間出偷竊 不足爲大患 自秀吉以詐惡 篡  
奪其主 以威虐驅率其下處 心積殆將十年.

34) 『西厓先生文集』卷8, 啓辭 柳祖初上疏回啓 乙未

夫以我國於倭賊 非有開釁之事 亦非有致寇之失.

35) 『西厓先生文集』卷5, 筭 陳時務筭 壬辰 十一月

今此受禍 亦惟中國之故 而中國不急相救 以階天下之亂 使中國有人謀事 必不如此矣.

는 宣祖가 조선의 진짜 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5월 崔世臣·林世祿 등을  
조선에 파견하여 국왕을 직접 만나 사실 여부를 확인케 했으며,<sup>36)</sup> 7월에는  
다시 徐一貫·黃應陽·夏時 등을 보내 실상을 조사토록 하였다.<sup>37)</sup> 이처럼  
명이 조선에 대한 의심의 눈을 거두지 않자, 류성룡은 섬에서 농사를 짓는  
한편 육지에서 향전을 벌이다가 일본군이 명으로 향하면 배후를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8)</sup> 이로 보아 그는 일본군 출병의 궁극적 목적은 명 공격  
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조 역시 명 사신에게 일본  
이 조선을 침략한 이유는 명을 공격하기 위해 길을 빌려달라는 일본의 요  
구를 조선이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sup>39)</sup> 이러한 인식은 당시  
조선인의 일반적 정서였음을 알 수 있다.

전쟁 초기 조선의 일방적 패배에 대해 류성룡은

뜻밖에 강한 왜구가 졸지에 다다르니 온 나라 안이 놀라 흩어지고, 편안  
한 것에 익숙해져 훈련받지 못한 병사들이 형세 등등한 적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sup>40)</sup>

라고 하였다. 즉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침입을 받아 패배를 거듭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임금께서는 왕통을 이어 遺業을 지켜 가시면서 위험을 예방하고 바  
로잡는 데 마음을 쓰신 까닭으로 방비를 더하고 바꾸지 않았으나, 불행히  
도 강한 왜구에게 쫓겨 6道가 거의 무너지고 城闕을 보존할 수 없어 열흘  
내지 달포 만에 드디어 播遷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실상 못 신하들

36) 『宣祖實錄』卷26, 25年 5月 戊子.

37) 『宣祖實錄』卷28, 25年 7月 戊午.

38) 『宣祖實錄』卷32, 25年 11月 辛巳.

39) 『宣祖實錄』卷28, 25年 7月 乙未.

40) 『西厓先生別集』卷3, 呈文 呈司天使文

不意強寇猝至 國內驚潰 以狃安不習之兵 不能當勢大之賊.

이 받들어 행하지 못한 데 죄가 있는 것이며, 또 본국의 병제를 제정한 방법이 미진하였기 때문입니다41)

라고 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신을 비롯한 신료들에게 그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국왕인 선조는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전쟁 초기 패전 이유에 대해 류성룡은 조선군의 준비 부족 외에 일본군의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사실도 지적하였다. 그는 일본군의 장점에 대해

왜적의 장기는 세 가지가 있으니 조총, 창칼,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돌진하여 분투해서 끊는 물에 들어가고 불 속에 뛰어들지라도 사양치 않는 것이다. 이는 천하에서 가장 굳센 적이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없다42)

라고 하였다. 즉 그는 병기의 우수성, 전쟁에 임하는 자세 등 모든 면에서 조선군이 일본군을 감당할 수 없다고 평가했던 것이다. 특히 그는 일본군의 장점인 鳥銃을 배워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43)

일본군의 진법에 대해서는

왜군은 군대를 나눌 때마다 반드시 다섯으로 만든다. 일진이 적을 당하면 뒤에 이진은 좌우익을 벌려 그들을 포위하며, 좌우 두 머리가 적을 당하면 또 뒤의 두 진이 그 바깥으로 둘러싸서 우리 군사로 하여금 그들의 포위 속에 들어 있게 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눈이 어지럽고 마음속으로 겁

41) 『西厓先生別集』卷2, 呈文 呈經略文  
寡君 自嗣守先緒 其所以軫念陰雨 警勅防備 有加而無替 不幸爲強寇所乘 六路幾於淪淪 城闕不保旬月之間 遂至播越 此實罪在群臣之不能奉行 而亦由本國制兵之道有未盡焉耳.  
42) 『西厓先生文集』卷14, 雜著 戰守機宜十條 并序 甲午 冬  
倭之長技有三 鳥銃也 槍刀也 又能輕生突鬪 赴湯蹈火 而不辭也 此天下之勁寇 而我國不能敵.  
43) 『辰巳錄』, 乞抄擇精兵以爲後圖狀 癸巳 5월 25日  
且臣又有一慮 倭賊之所恃以全勝者 只是鳥銃一物而已 我國亦當日夜訓練 使軍士無不學習 則賊之長技 我亦有之矣.

이 나게 만들어 싸워 보지도 않고 먼저 저절로 흩어지게 하였다. 왜군은 가는 곳마다 이런 술법을 써 승리를 취하는데 우리나라의 장수들이 끝내 깨닫지 못하고 매번 군사를 한 곳에 모아 놓았다가 함께 나아가 패전만 당하였다44)

라며 높이 평가하였다. 1592년 일본의 조선 침략 당시 平昌郡守로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했던 權斗文 역시 일본군의 행군시 전략, 진지의 견고함, 병장기 관리 등을 통해 일본군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45) 이로 보아 일본군에 대한 류성룡의 평가는 매우 정확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류성룡은 일본군의 축성기술이 뛰어나다는 사실도 지적하였다. 즉 조선의 성은 낮은데 위치하여 일본군이 높은 곳에서 공격하면 당해낼 수 없는데 반해,46) 일본군은 성을 쌓을 때

거듭 차곡차곡 쌓아, 비록 한 겹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또 한 겹이 되고, 성안에 꼬불꼬불한 좁은 길이 많아 사람이 좌우의 방향을 알지 못하게 하며, 좌우에 구멍을 뚫어 대포와 소포를 설치하니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성 쌓는 법과는 아주 다르다. 그러므로 그들을 공격하기가 극히 어렵다47)

라고 하였다. 의병장 郭再祐 역시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쌓은 島山城을 평지 가운데 산성으로 견고함을 비길 데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보아,48)

44) 『西厓先生文集』卷16, 雜著 倭知用兵  
凡分軍必爲五 一陣當敵後 二陣張左右翼 圍繞之左右 而頭遇敵 則又後二陣 繞出其外 常使我軍 在其圍中 而使之目眩心怯 故不戰而先自潰散 到處用此術以取勝 而我國之將 終不悟 每聚軍一處 俱進取敗.  
45) 方琪詰, 앞의 글, 86~89쪽 참조.  
46) 『宣祖實錄』卷50, 27年 4月 乙丑.  
47) 『西厓先生別集』卷4, 雜著 倭善守城  
重重疊疊 一重雖不守 而又有一重 城內多委巷曲逕 使人不知所之 左右鑿穴 安大小砲 與中原及我國城制絕異 故攻之極難.



당시 일본의 축성기술이 조선보다 뛰어났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일본의 성은 경제활동과 전국다이묘(戰國大名)가 거주하는 성 아래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인 조카마치(城下町), 3丸으로 이어진 성벽 방어시설, 성 중심에 3층 또는 5층으로 높게 만든 망루인 텐슈가쿠(天守閣)를 갖추고 있어 방어와 점령지의 대민 위무, 일본군의 경제활동과 농업활동 등도 동시에 수행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조선의 성은 소규모 집단의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 삼남지역에는 읍성이 주류를 이루었고, 산성의 경우도 주민보호 기능에 중점을 두었다.<sup>49)</sup> 따라서 1592년 일본의 조선 침략과 같은 전면전에서 조선의 성은 기능을 다하지 못한 반면, 일본군이 쌓은 성은 방어에 유리하여 조선군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었다. 때문에 조선도 전쟁 후 北道의 성체를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개축토록 하였다.<sup>50)</sup> 그런 만큼 류성룡이 일본군의 축성기술을 높이 평가한 것은, 그가 일본군의 전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그는 일본군이 추위에 약하고 수전에 능하지 못하다며 일본군의 약점도 파악하고 있었지만,<sup>51)</sup> 대체로 일본군의 전투력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었다. 이처럼 그는 전쟁을 통해 일본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였고, 일본군의 장점을 배우자고까지 하였다.

전쟁 초기 류성룡은 일본군의 전투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평양성 탈환 이후에는 점차 일본군을 낮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평양성 탈환 이후 그는 일본군의 병법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小西行長이 홀로 수천 명의 군사로 평양을 점령한 지 반 년 동안 그들은 길을 따라 군영을 연결한 것이 1~2백 곳에 지나지 않았다. 兩邊에는 모두

48) 『宣祖實錄』卷120, 32年 12月 戊子.

49) 柳在春, 『近世 韓日城郭의 比較研究』, 국학자료원, 1999, 50~67쪽 참조.

50) 『宣祖實錄』卷127, 33年 7月 乙丑.

51) 『西厓先生文集』卷10, 書 答金士純書 壬辰 八月 島夷性不耐寒 應是自滅之期 (….) 賊短於水戰.

우리 사람이었으니, 만약 병사를 내어 끊어 버렸다면 뒷길이 이미 끊어져 평양의 도적은 스스로 물러갔을 것이다.<sup>52)</sup>

위 글은 일본군이 평양까지 들어왔고 그 기간이 짧지 않았지만 군영 연결이 원활치 못했음을 지적하고, 조선이 이를 이용하지 못했음을 한탄한 것이다. 사실 일본군은 선발대의 전진 속도를 보급선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격시켰고, 그로 인해 보급선과 방어선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었음이 사실이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당시 일본에 있던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Luis Frois)는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은 점령지역에 하루 정도 여정을 따라 성체를 만들었지만, 그 외의 지역은 조선인들이 차지했다고 기록하였다.<sup>53)</sup> 따라서 류성룡의 지적처럼 일본군 성체 간의 연결을 끊고 공격했다면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그가 일본군의 단점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난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일정보를 확보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함께 전세가 공세로 전환되면서 점차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한다.

조선은 1593년 1월 13일 평양성 탈환 이후, 3월 14일에는 幸州山城에서 다시 대승을 거두었다. 또 바다에서는 李舜臣이 연전연승하고 있었고, 전국 각처에서 義兵이 봉기하는 등 전황은 점차 조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갔다. 이에 따라 일본군은 4월 19일 한성에서 철군했고, 5월 중순 이후에는 군량수송이 용이한 蔚山에서 巨濟에 이르는 남해 연안에 주둔하고 있었다.<sup>54)</sup> 이처럼 전세가 반전되자 서에는 일본군의 전투력을 낮게 평가하게

52) 『西厓先生文集』卷16, 雜著 倭不知兵

平行長獨以數千兵 據平壤半歲 沿途連營 不過一二白 而邊皆我人 若能出奇橫截 則後路既斷 耳平壤之賊 自退矣.

53) 프로이스(저), 오만·장원철(역),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국립진주박물관, 2003, 242~243쪽 참조.

54) 孫鍾聲, 『강화회담의 결렬과 일본의 재침』, 『한국사』 29, 국사편찬위원회, 1995, 94쪽.

되었던 것이다.

1593년 12월 류성룡은

왜적은 바로 海島에서 꾸물거리는 벌레 같은 종족이라 당초부터 깊은 피와 먼 식견을 가지고 있음은 아니나, 用兵에는 제법 익숙하여 부산으로부터 천리에 군영을 연결하여 깊이 남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sup>55)</sup>

라고 하여, 비록 일본군이 용병술이 능하기는 하지만 그리 위험한 존재는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일본군의 방법은 사술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혹평하였다.<sup>56)</sup> 또한 일본군의 약점에 대해서도 정확히 지적하였다.

적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년 남짓 되어 그 기세는 이미 쇠했으며, 그 마음이 나태해지고 사졸들은 모두 고향 생각에 잠겨 있고, 기계와 칼·갑옷은 모두 망가지고 무디어졌으며, 양식이 다 되었는데도 고립된 군사로서 너무 깊이 들어가서 전후좌우에 우리나라 군사가 아님이 없습니다.<sup>57)</sup>

위 글을 보면 그는 사기 저하, 병장기의 훼손, 보급수송의 어려움과 진영의 고립 등 일본군의 약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류성룡은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한 것은 명을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

55) 『西厓先生文集』卷5, 筭 陳時務筭 癸巳 十二月

倭敵乃海島蠢然之種 初非有深謀遠識 而頗熟於用兵 自釜山千里連營 深入人國.

56) 『懲忿錄』, 錄後雜記

倭最好巧 其用兵 殆無一事不出於詐術.

57) 『西厓先生文集』卷9, 書 答天將書

大抵賊入寇本國 已一年餘 其氣已衰 其心已惰 其士卒皆思歸 其器械刀甲皆朽鈍而糧食亦將盡 且孤軍深入 左右前後 無非本國軍兵.

했고, 전쟁 초기 패전의 원인을 갑작스러운 일본군의 침입과 이를 대비하지 못한 신료들에게 찾았다. 반면 군주인 선조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한편 일본군의 병기와 진법, 守城 등 일본군의 전투력이 뛰어난 점 역시 조선의 패전 원인의 하나로 파악했다. 이처럼 그는 전쟁 초기 일본군의 전투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평양성 탈환 이후 일본군에 대한 시각은 다시 변하게 된다. 즉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고 일본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면서, 일본군을 낮게 평가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다.

#### 4. 대일강화에 대한 입장

일본군은 개전 2개월 만에 평양성을 점령하는 등 승전을 거듭했지만, 더 이상 진군하지는 못하였다. 玉浦海戰 이후 閑山島海戰에 이르기까지 바다에서의 연속된 패배로 해상권을 뺏기면서 보급선이 차단되었고, 의병의 활약으로 후방이 교란당하면서 전후방의 연락망이 단절되었기 때문이었다.<sup>58)</sup> 한편 평양성이 함락된 후 명은 6월 라오똥(遼東)의 군사 1,000여 명을 원군으로 파병<sup>59)</sup>한 데 이어, 8월에는 游擊 葛逢夏를 의주로 보내 行朝를 호위케 하였다.<sup>60)</sup> 祖承訓이 거느린 라오똥의 군대가 평양에서 패전하자, 12월에는 李如松이 43,000여 명의 원군을 이끌고 조선에 이르렀다.<sup>61)</sup> 1593년 정월 조선과 명의 연합군에 의해 평양성 탈환이 이루어졌다. 승세를 탄 명군은 일본군을 공격했지만, 碧蹄館戰鬪에서 패전한 후에는 한성수복을 포기하였다.

58) 趙浚來, 『왜란의 발발과 경과』, 『한국사』 29, 국사편찬위원회, 1995, 79쪽 참조.

59) 『宣祖修正實錄』卷26, 25年 6月.

60) 『宣祖修正實錄』卷26, 25年 10月.

61) 『宣祖修正實錄』卷26, 25年 12月.

명군은 벽제관에서 뜻하지 않은 패전을 당하자, 일본과의 강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經略 宋應昌은 沈惟敬을 일본 진영에 파견하여 강화 체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조선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었다. 때문에 조선 정부는 일본군에 거짓으로 투항하여 강화교섭을 방해하려 했고,<sup>62)</sup> 대신을 파견하여 심유경을 설득시키기도 하는 등<sup>63)</sup>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과의 강화를 반대하였다.

류성룡 역시 명이 강화를 통해 일본과의 전쟁을 끝내려는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명의 강화협상 방안에 대해

심유경의 계획은 강하지도 못하고 약하지도 못하여, 강화와 전쟁을 병용하는 계책을 가지고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니, 매우 허술한 술책이요 극히 위험한 처사입니다<sup>64)</sup>

라고 하여, 강화를 통해 일본군을 물러가게 하겠다는 계약이 허황되며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류성룡이 명의 강화전략을 비판했던 이유는 일본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예로부터 오랑캐는 신의로 회유하기 어려워, 반드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고서야 싸우면 이기고 지키면 튼튼하고 羈縻하면 순종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기미한다는 말이 바로 적의 교만심만 더하게 할 뿐입니다.<sup>65)</sup>

62) 『宣祖實錄』卷36, 26年 3月 癸未.

63) 『宣祖實錄』卷37, 26年 4月 乙酉.

64) 『西厓先生文集』卷6, 書狀 論沈遊擊與賊講解狀  
沈之此計 既不能強 又不能弱 特和戰并用之策 自投虎狼之口 其謀甚疎 而其勢極危.

65) 『西厓先生文集』卷9, 呈文 呈司天使陳賊情文  
自古夷狄 難以信義懷服 必須伸縮操縱之權在我 然後以戰則勝 以守則固 以羈縻則能得順伏 如其不然 則羈縻之說 適足以益其驕心而已.

위 글을 보면 그는 전쟁의 주도권을 조선과 명이 장악한 상태라면 일본과의 강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일본은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할 것이며, 장차 대일관계에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강화는 전쟁 당사국인 조선이 배제된 가운데 명과 일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화가 이루어질 경우 일본은

은혜는 중국으로 돌릴 것이고 우리에게 대한 원망은 점점 심해져서 섬멸하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의 낭패는 만 가지나 될 것입니다<sup>66)</sup>

라고 하여, 명과 일본 간의 강화가 이루어질 경우 조선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것을 염려하였다. 이와 함께 강화가 성립되면 조선으로서는 “꼭 갚아야 할 원수를 두고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sup>67)</sup>며, 일본군을 완전 섬멸시킬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 역시 경계하였던 것이다.

일본과의 강화를 통해 전쟁을 종결시키려는 명의 계획이 조선 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자, 總督 顧養謙 등은 명군을 철군시키겠다고 조선 정부가 직접 명 황제에게 히데요시의 봉공을 요청토록 하였다.<sup>68)</sup> 이때에도 역시 조선 정부는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류성룡은 명의 요청을 받아들여 히데요시에게 봉공을 청하는 내용만 劄 奏本을 명 황제에게 보낼 것을 주장했다.<sup>69)</sup> 그렇다면 그가 갑자기 대일강화에 대한 입장을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66) 『西厓先生文集』卷6, 書狀 至安州致啓所聞狀  
德於中原 而怨我滋甚 益難牧殺 前頭狼狽 有萬其端.

67) 위와 같은 글  
而在我有必報之讎 不可但已.

68) 『宣祖實錄』卷51, 27年 6月 辛亥.

69) 『宣祖實錄』卷51, 27年 6月 乙丑.

류성룡은 부친 柳仲郢과 재종숙 柳景深이 사신으로 명에 다녀온 家學의 영향을 받았으며,<sup>70)</sup> 14세이던 1555년 12월부터 1557년 봄까지 부친을 따라 명과 국경을 접한 의주에서 생활하였다.<sup>71)</sup> 뿐만 아니라 전쟁 발발 전부터 대명외교 일선에서 활약한 경험이 있다. 1569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聖節使 書狀官으로 명을 다녀왔고,<sup>72)</sup> 1572년에는 遠接使 從事官으로 의주에서 頒詔使를 맞이했다.<sup>73)</sup> 또 1582년 명 사신이 조선에 왔을 때에는 특별히 都承旨에 제수된 바 있다.<sup>74)</sup>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그는 명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가졌던 것 같다.

류성룡은 전쟁 발발 후에도 조선에 파견된 명 관리나 장수들을 상대했던 만큼, 명군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심유경과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간에 평양에서 이루어진 강화는 명 고위층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었음<sup>75)</sup>을 알았기 때문에 대일강화를 반대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에 참전한 명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다. 사실 명이 조선에 원군을 파견했던 이유는 일본군의 중국 본토 침입 차단을 위한 것이었다.<sup>76)</sup> 따라서 명은 자신들의 목표를 완수한 만큼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물론 조선 정부나 그 역시 일본군을 완전 섬멸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명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사

70) 李樹健, 「西厓 柳成龍의 社會經濟觀」, 『大丘史學』 12·13, 大丘史學會, 1977, 227쪽 참조.

71) 『西厓先生年譜』 卷1, 14·15·16세 참조.

72) 『西厓先生年譜』 卷1, 28·29세 참조.

73) 『西厓先生年譜』 卷1, 31세 참조.

74) 『西厓先生年譜』 卷1, 41세 참조.

75) 이완범, 「임진왜란의 국제정치학-일본의 조선분할요구와 명의 對조선 중주권 확보의 대립, 1592~1596-」, 『정신문화연구』 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99~100쪽 참조.

76) 명의 참전은 일본군을 조선에서 막아 전선이 자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구들이 참고된다. 崔昭子, 「壬辰倭亂時 明의 派兵에 대한 論考」, 『東洋史學研究』 11, 東洋史學會, 1977; 方相鉉, 「壬辰戰爭의 歷史의 性格에 對한 再檢討-明軍의 朝鮮出兵 性格을 중심으로-」, 『水滸朴永錫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上, 探求堂, 1992;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항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선에 파견된 명군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고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노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류성룡의 이 같은 구상은 강온양면책을 통해 대명관계 및 대일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릇 위엄으로 두렵게 하여 그 완악함을 징계하고 관곡함으로 얹어매어, 그 화란을 늦추게 하는 이 두 가지는 옛 제왕들이 오랑캐를 막는 방편으로 다 같이 호풍한 것을 금지하고 生靈을 온전케하는 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sup>77)</sup>

위 글은 명군의 요구에 응해 그가 작성한 글이다. 따라서 글의 내용이 그의 생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오랑캐를 다스리는 방법에 있어 강온 양면책을 주장한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명이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강경책과 함께 강화라는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조선 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히려 했던 것이다.

강화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류성룡은 이를 이용해 조선의 군비를 재정비할 시간을 벌려고 하였다. 조선은 명군의 요청에 따라 히데요시를 일본 국왕에 책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글을 보냈고, 명은 이에 따라 ① 히데요시의 일본 국왕 책봉 이후 조선뿐 아니라 쓰시마 섬(對馬島)에도 일본인이 머물지 말 것, ② 책봉 외에 조공은 허락치 않을 것, ③ 조선과 수호하여 함께 속국이 될 것이며 함부로 침범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일본과의 강화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강화를 주도한 송응창이 탄핵을 받아 강화는 진전되지 못하다가, 2년 후인 1595년에야 명은 일본에 책봉사를 파

77) 『西厓先生文集』 卷3, 奏文 陳賊情奏文 甲午 六月

夫震之二威 以創其頑 糜之以疑 以弭其禍 斯二者非古帝王禦夷之大權 而同歸於禁止兇暴 典生靈。

견하였다. 이때 강화가 이루어진 것은 심유경과 고니시 죠안(小西如安)이 명 황제와 히데요시를 속인 것이었다. 즉 명 황제와 정부에서는 히데요시가 항복한 것으로, 히데요시는 명이 자신의 권위를 인정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처럼 강화의 전제조건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封倭正使 李宗城이 부산에서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안팎으로 복잡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었다.<sup>78)</sup>

이처럼 명과 일본과의 강화가 불투명한 상황하에서도, 류성룡은 강화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이에 따른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적은 우리와 만세를 두고 반드시 갚아야 할 원수입니다. 지금 비록 나라의 세력이 궁하여 굴함을 면치 못하지만, 臥薪嘗膽하여 꼭 갚고야 말겠다는 생각은 잠시도 풀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수도 빈말과 하는 일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안으로는 굳게 참는 의지가 있고 밖으로는 오랜 정치가 있어, 군신상하가 한 마음으로 먼저 규모를 세워 만장래를 기약해야 합니다.<sup>79)</sup>

위 글을 보면 그는 일본군을 완전 섬멸시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선에게 그런 힘이 없는 만큼, 강화를 받아들이고 그동안 철저한 준비를 하여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입장은 趙穆에게 보낸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계사·갑오년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으며, 국가의 형세가 심히 위태로워 하루도 보전하기가 어려웠고, 힘으로는 능히 적을 도모할 수 없었

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밖으로는 명 조정에서 기미하려는 계획을 쫓아 적세를 조금 완화시키고, 안으로는 전쟁과 수비에 대응할 준비를 닦아서 서서히 뒷날을 도모하려고 스스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sup>80)</sup>

즉 백성들은 기아에 처했고 국가의 힘은 일본을 막을 여력이 없는데, 명이 강화를 원하는 만큼 일본과의 회의를 통해 안으로 군사력을 정비하여 후사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류성룡은 명과 일본 간의 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총·火車·火箭·火砲 등 각종 무기를 제조케 했고, 명의 戚繼光이 왜구를 막는 이론을 체계화한 『기효신서』의 절강방법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중앙에는 砲手·殺手·射手의 三手兵 중심의 훈련도감을, 지방에는 民兵을 鄉保單位로 편성한 束伍軍이 설치되었다. 특히 그는 『기효신서』와 일본군의 축성 기술의 장점을 합하여 독자적으로 성 쌓는 방법을 개발하고, 성곽 수축을 적극 건의하였다. 지휘체계 역시 국지전에 유리한 制勝方略에서 전면전에 유리한 鎭管體制로 전환하였다. 또 각종 세금을 쌀로 내게 하는 공물작미법 실시, 中江開市를 통한 명과의 무역, 屯田의 개간과 鹽田의 운용, 空名帖 발행 등을 통해 군량미 확보에도 노력하였다.

명과의 강화가 결렬되자, 일본군은 1597년 정월 재침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이때 일본군은 북상하지 못하고 蔚山·機長·南海·順天 등 남해 연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강화로 인해 시간을 벌면서 군비확충 등을 통해 전력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류성룡의 구상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78) 『宣祖修正實錄』卷30, 29年 4月.

79) 『西厓先生文集』卷8, 啓辭 措置防守事宜啓 乙未

倭賊與我 有萬世必報之讐 今雖國勢力窮屈 未免與時消息 而其薪膽必報之念 不可頃刻而弛也 然復讐亦不可空言無事而可爲也 必內有堅忍之志 外有悠久之政 君臣上下 斷斷一心 先立規模 以久遠爲期.

80) 『西厓先生文集』卷10, 書 答趙士敬

當癸甲之間 人民相食 國勢危甚 朝夕難保 而力未能圖敵 生以爲外循 大朝羈縻之計 少緩賊勢 而內修戰守之備 徐爲後圖自計.

## 5. 맺 음 말

이 글은 일본의 침략설, 일본군에 대한 평가, 대일강화에 대한 류성룡의 입장 등을 통해, 그가 일본의 조선 침략 더 나아가서는 일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구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는 전쟁을 맞아 조선 정부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인 만큼, 일본에 대한 최고급 정보를 토대로 대일정책을 펼쳤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의 전쟁에 대한 시각은 조선 정부 내지는 지식인의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류성룡은 전쟁 발발 전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이는 오랑캐의 나라인 일본이 문화국인 조선이나 명을 침략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정세에 대해서는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주군인 노부나가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찬탈한 인물로 생각하고, 폭군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히데요시는 일본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만큼, 그 정권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전쟁 전 그는 화이론에 입각하여 조선이 일본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 일본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는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 정세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상태였다.

일본의 침략을 맞아서는 전쟁 발발은 히데요시 개인의 야심에 의한 것으로 생각했다. 또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한 것은 명으로 향하기 위한 방편인 것인 만큼, 명이 조선에 원군을 파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다. 전쟁 초반 연속된 패전 원인에 대해서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자신을 비롯한 조선의 관료들에게 책임을 돌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군의 예기치 못한 공격 때문으로 이해하였다. 이와 함께 병기, 축성기술, 전술 등 모든 면에서 일본군이 조선군을 압도하였기 때문에 패전을 거듭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전쟁을 통해 일본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였고, 일본의 모든 것을

야만시하던 시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평양성 탈환 이후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승기를 잡아가고, 일본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면서, 일본군의 약점과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등 일본군을 낮게 평가하였다.

명은 전쟁이 자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참전했고,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면서 강화를 통해 신속히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대일강화에 대해 류성룡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가 대일강화를 반대했던 이유는 전쟁 당사자인 조선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강화는 향후 조선의 외교적 입지가 축소될 것이며,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을 완전히 섬멸시킬 가능성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후에 입장을 바꿔 대일강화를 찬성하게 된다. 그 이유는 명 정부가 강화를 통해 종전을 원하는 만큼, 이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즉 당시 조선의 국력으로는 강화를 반대하고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만큼, 강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명의 요청을 따르면서 시간을 벌어 조선의 군비를 재정비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실제로 그의 구상대로 조선 정부는 강화협상 중 각종 무기의 제조, 성곽 수축, 절강병법의 도입, 훈련도감 신설, 진관체제로의 전환, 군량미 확보 등 군비확충을 이루었다. 그 결과 1597년 2차 침략 때에는 일본군은 부상하지 못하고 남해 연안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류성룡은 전쟁 중 국정을 총괄했던 만큼 자신의 그릇된 판단은 국가의 멸망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 때문에 전란이라는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만큼 그의 대일정책은 화이론에 기초하였지만 현실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쟁 전 일본의 침입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쟁 중 일본군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했고, 일본군의 장점을 배워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였다. 이는 전쟁을 통해 일본과 접하면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과의 강화문제가 대두되자, 그는 당시 조선의 실정

과 대명관계를 감안하여 현실적인 외교노선을 견지하였다. 이는 그가 국정을 담당하면서 가지게 된 정치·군사·행정적 노하우에 따라 명분과 함께 실리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원고투고일 : 2008. 9. 29, 심사수정일 : 2008. 10. 21, 게재확정일 : 2008. 11. 17)

주제어 : 대명관계, 대일강화, 대일외교, 대일인식, 류성룡, 서애, 일본, 일본군, 일본의 조선침략, 화이론

<ABSTRACT>

Viewpoints and Countermeasures by *Seoae Ryu Seong-ryong* on the Japanese Invasion against the *Joseon* in 1592

Bang, Ki-cheol

This writing is to identify the understanding of *Ryu Seong-ryong*(柳成龍) through his viewpoints on the opinion of Japanese aggression on the *Joseon* Dynasty, assessment of Japanese troops, and peace negotiations with Japan.

*Ryu Seong-ryong* regarded the possibility of Japanese aggression against *Joseon* before Japanese Invasion against the *Joseon* in 1592 as a matter of low. As for the Japanese situation, he knew that *Toyotomi Hidoyoshi*(豊臣秀吉) brought the country under a single authority but was unaware of details such as the process of his coming into power.

*Ryu Seong-ryong* believed that Japan invaded the *Joseon* in order to invade *Ming*, China. He argued that the *Joseon* should learn the strong points of Japanese Forces because he thought the *Joseon* was defeated at the earlier part of the war due to the insufficiency of *Joseon* in preparation, the surprise attack by the Japan, and Japan's overwhelming against the *Joseon*. After the recovery of *Pyeongyangseong*(平壤城), however, he began to change his viewpoints on Japanese Forces, and rated Japanese Forces low by pointing out the defects in tactics of Japan, being confident that *Joseon* could defeat Japan.

*Ryu Seong-ryong* definitely had opposed peace negotiations with Japan because he believed that the diplomatic position of *Joseon* would be

attenuated in the future and complete extermination of Japan would be impossible when *Joseon* could not participate in the peace negotiations. However, he later changed his ground to support the peace negotiations with Japan because he recognized that the negotiations could not be refused after *Ming*, China wanted the peace with Japan. He attempted to reconsolidate the preparedness of the *Joseon* Forces by obeying the *Ming*'s demands and gaining time. In fact, while the peace negotiations were being in progress, *Joseon* increased armaments such as manufacturing various weapons, repairing castle walls, introducing *Jeolgang* Strategy(浙江兵法), creating *Hulryeondogam*(訓練都監), converting into *Jingwan* System(鎭管體制), and ensuring provisions, following *Ryu*'s conceptions. Owing to this military strengthening, the Japanese Forces failed to go north and had to stayed on the southern coast when they invaded *Joseon* again in 1597.

*Ryu Seong-ryong* might bring the *Joseon* to collapse by his misjudgement because he was charged with affairs of state during the war. This is why he should be careful in performing every affair, and it is safe to say that his policy toward Japan was considerably realistic.

Key Words : Japan, Japanese Forces, Japanese Invasion against *Joseon* in 1592, *Joseon*'s Diplomatic Policies toward Japan, Peace Negotiations with Japan, Perception of Japan, Relation with *Ming*, *Seoae*, Theory of the Civilized and the Barbarians, *Ryu Seong-ryong*